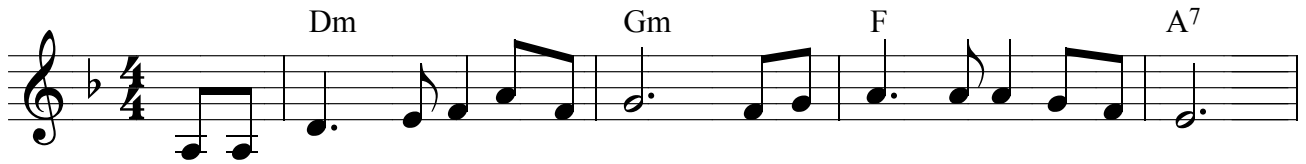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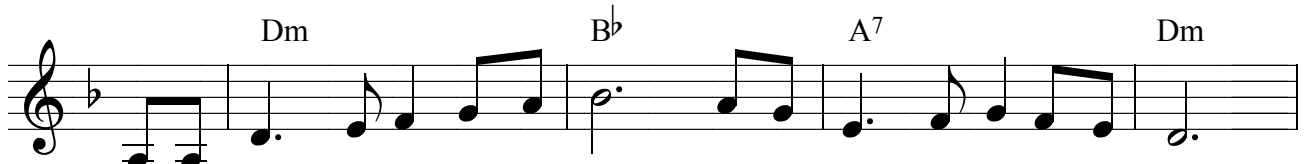


김동국 작사, 작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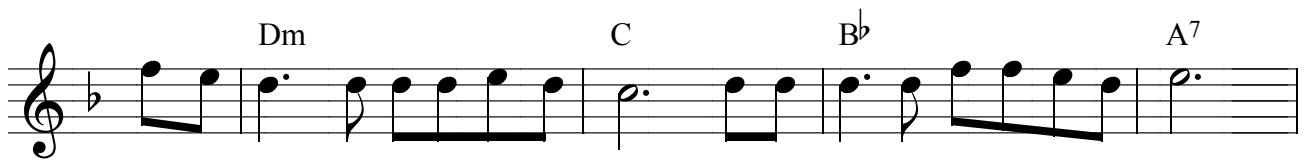
내가 저야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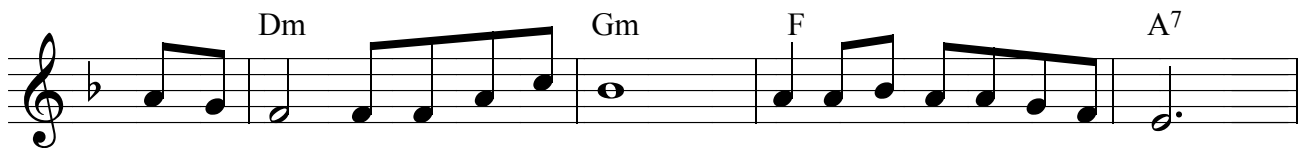
내가 써야 할 가시관 주님이 대신 쓰셨네
 나의 허물과 죄악을 보혈의 피로 씻었네
 나의 고통과 질병을 주님이 치료하셨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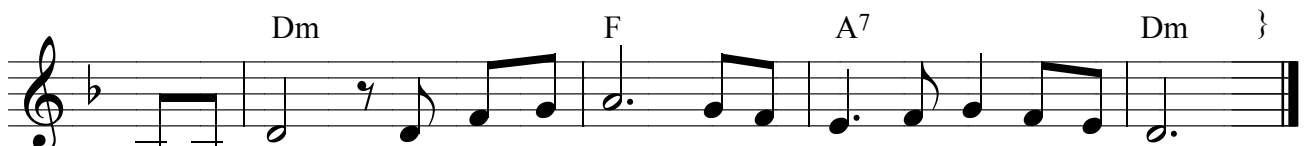
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 다 갚으오리까



탕자 처럼 살아 온 나를 사랑으로 감싸 주시니



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다 할 때까지



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다